

이 병 길
정회원, 예림 건축사사무소(강원)
by Lee, Byeong-kil, KIRA

삶의 공간 세우기 20년

- 제13차 전국 여성건축사대회를 마치고

20 Years for Establishing Lifescape ; reflection of the 13th Korea Female Registered Architect Convention

'2007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의 개최지가 강원도로 정해지면서 강원도 소재 4명의 여성 건축사들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최적지로 어디가 좋을지 많은 논의 끝에 자연과 역사가 함께 하는 동해안 강릉, 속초로 결론이 났다. 그 때부터 필자의 행보는 바빠졌고,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절감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삶을 읽어내고 선택, 분석하여 공간으로 형상화하면서 겪었던 고민이 여성 건축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덜어질 수 있었다. 선배님들의 사랑, 동기들의 우정과 연민, 후배들의 귀여움 속에서 외로움도 절망도 이겨 내길 벌써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실무자로서 회장의 철두철미한 진두지휘 아래 많은 분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차근차근 준비는 진행되었고, 드디어 결전의 날은 다가왔다.

서울과 대전에서 출발한 버스에서 80여 명의 회원들이 출발해 12시 즈음 강릉에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동안의 대회가 대도시 중심의 대형 건축물을 답사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모임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비어있는 듯하면서도 이어지는 여유 있는 공간의 멋을 느끼게 해 줄 곳을 선택하고 싶었다. 그래서 고른 곳이 강릉의 선교장과 오죽헌이었다.

관동대 정재국 교수님의 친절한 안내로, 요즘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모내기 상차림을 재현한 고옥 '서지말'에서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선교장을 찾았다. 일명 배다리 집으로 불렸던 강릉 선교장은 조선 후기 전형적인 상류주택으로서 인공 연못 위에 세운 정자로 7자형인 마루가 연못 안으로 들어가 돌기둥을 받친 누각형식으로, 연못 지중에 당주가 있고 소나무 숲의 정자가 있는 활래정이 보인다. 위쪽의 선교장에서부터 끊임없이 내려오는 맑은 물은 이 연못에 모인다. 선인들의 지혜가 섬세히 표현되어 있으며, 자유스럽고



여유로운 생활이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날따라 활래정 마루 밑의 아궁이에는 군불이 지펴지고 있었다. 축축한 날씨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니 따뜻함이 느껴진다. 길을 따라 들어가면 좌측으로 농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초췌하고 소옥들이 있으며, 바로 보이는 행랑채에는 대문이 두 개가 나있다. 왼편엔 남자들의 출입문인 솟을대문이, 오른편에 여자들이 드나드는 평대문이 있다.

솟을대문 입구에서 정교수님의 권유로, 박영순 회장님이 “나를 따르라” 며 외치고 들어가는 뒤를 따라 우루루 안으로 들어섰다. 조선 시대 사대부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남성의 사랑채인 열화당과 하인들이나 손님의 행랑채, 여성의 안채로 여성들의 생활상이 공간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으며, 현대 건축물에만 존재할 것 같던 수납공간인 반침이 각방에 설치되어 생활의 편리성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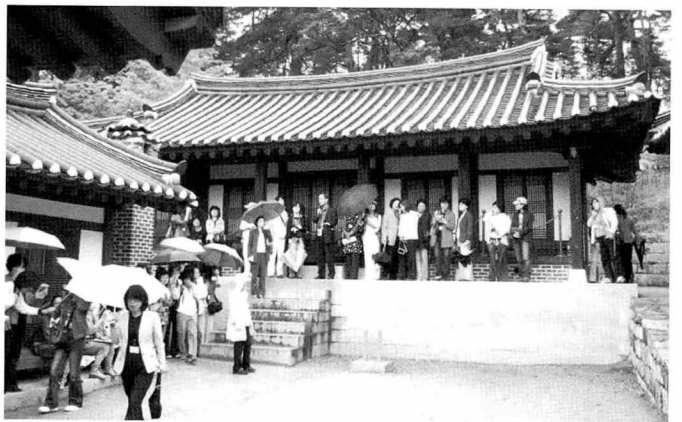
서지들

정교수님의 섬세하고 낭랑한 설명이 우리가 건축물을 바라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주었다.

비 소리가 점점 거세지면서 우리는 오죽헌으로 향했다.

오죽헌은 조선 초기의 별당 건축으로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이다. 주심포에서 익공집으로 변천과정을 보여주며 공포양식이 2익공 양식으로 새의 부리형태가 그대로 느껴졌으며, 이이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 문성사는 콘크리트로 목조건물인양 지어져 있어서, 마치 생화 같은 조화의 느낌이어서 위화감을 주었다. 이제 우리도 건물 하나하나를 지을 때 경제적 논리만이 아닌 예술성과 환경 조화성을 생각할 여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고액 신권 화폐모텔로 신사임당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



선교장



오죽헌

들 올곡은 이미 화폐에 등장했고, 그를 키워낸 최고의 어머니상인 신사임당이 고액 신권 화폐 모델로 선정되는데 우리 여성도 한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신사임당의 성품 및 여류예술가적 기질을 생각해 볼 때 현대 우리 여성 건축사들이 닮은꼴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 일정인 낙산사로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가 오는 관계로 일정이 늦어져서 낙산사에는 들르지 못하고 바로 호텔로 가기로 했다.

2005년 4월 5일 발생한 큰 산불로 낙산사원장, 원통보전, 일주문, 흥예문 등 주요전각과 동종이 소실되고, 7층 석탑이 일부 손상되었다. 낙산사의 불은 거의 다 잡은 불길이라 생각하고 방심하다 작은 불씨가 다시 커져 대화재가 되었으니, 후손들에게 우리는 큰 빚을 지고야 말았다.

현재 낙산사는 불타던 흥예문, 동종이 복원되었으나 옛 모습과는

재료 및 기법에서 차이가 느껴지고,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원통보전은 얼마 전 상량식을 끝냈으며 지속적으로 복원 중에 있으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만찬 준비를 했다.

만찬에는 속초시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을 모시고 환영과 격려를 받으면서 감사의 표현으로 속초시 장애인 단체에 후원금도 지급하였다.

뒤이어 여성건축사회 총회가 열렸다.

이쉬움 속에 임기가 끝나는 박영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으로 이재림 부회장을 선출하고 임원진들도 재구성하였다.

다음 안건으로 '여성건축사의 참여 확대와 제도적 지원'의 제목 아래 발표가 시작되었다.

최근 건축 규제 완화 및 건축물의 리모델링공사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



개회식 및 만찬



제진역사

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도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제 및 건축사가 디자인 빌더(Design-Bulider)의 역할을 담당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도개선 및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축문화 발전에 중심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거듭나고자 다짐하자, 아자! 아자! 아자!

우리들의 발표가 끝이 보이지 않자 시간 관계상 줄여서 끝내기로 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자유의 시간을 가졌다. 밖에는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신선한 바람과 바다 내음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었다. 대포항의 불빛도 많이 줄어들어 심야에 삼삼오오 우리는 횡집을 찾아 나섰다. 적당한 회 값은 치르려고 kg당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서, 나름 횡감도 흥정하고 적당한 가격에 우리는 테이블 몇 개를 붙이고 소주 한잔을 기울이며, 반가움, 새로움, 신선함, 친근감 등 복합적인 감정들이 서로 얽히고 얽히면서 밤은 깊어갔다.

다음날 아침 다들 날씨는 개었고, 우리의 역사의 현장이 될 제진역으로 향했다.

통일에 대비하여 새롭게 건설된 '제진역'. 이제 통일만 된다면 아래 위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질 그 날을 기다리는 텅 빈 역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런데 그곳엔 남의 나라를 드나들 때 이용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있다. 북쪽은 내 나라이면서도 아직은 온전한 내 나라가 아니므로...

도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철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둘러보면서 정상적인 철도 개통이 이뤄지게 되면 현재 육로만을 이용해서 이뤄지는 금강산 관광은 남북 간의 물류수단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풀어야 할 숙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번 대회 주제인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넘어서...' 처럼 남과 북의 경계를 넘어 텅 비어 있는 이 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리하여 그 공간에 의미가 부여될 그 날을 기약하며 우리는 다시 속초 영랑호로 향했다.

오래 전 신라의 화랑 영랑이 동료들과 금강산에서 수련을 하고 귀향하던 중 호수를 지나가다가 거울같이 맑은 호수에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고, 설악의 울산바위가 비친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한다. 영랑은 호수에 반해서 귀향길을 늦추고 풍류를 즐겼다고 해서 영랑호라 부르게 되었으며, 둘레가 8km, 수면적이 35만평에 달하는 거대한 자연호수로 윈드서핑, 카누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콘도미니엄이 등이 들어서 있어 휴양공간으로 전경이 무척 아름답다. 또한 속초 시민의 운동 코스로 영랑호를 한 바퀴 돌면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는데 호수의 아름다움에 운동이 즐겁게 느껴진다.

그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야외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따뜻한 햇살과 잔잔한 호수에 미풍이 불어 한층 더 아름다운 전경들과 여성건축사들의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은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출처]



영랑호